



<http://www.yline.re.kr>

## 남자 청소년들 앞선에는 관심 적어...

**우** 리 협회는 1982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과 성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13개 지회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7월부터는 사이버성상담 사이트(www.yline.re.kr)를 오픈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사이버 성상담을 운영하면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사이버성상담 관련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상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이버 성상담 지침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제작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성상담 지침 및 사례집'에 따르면 남자청소년들이 성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는 여자 청소년

보다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감이 결여된 즉흥적, 충동적인 성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자 청소년은 상담의뢰인 총 2,966명 가운데 임신 1,457명(49.12%), 피임 209명(7.05%), 성관계 165명(5.56%), 생식기 151명(5.09%), 바디이미지 143명(4.82%) 월경&몽정 143명(4.82%) 순으로 상담건수가 많았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상담의뢰인 총 1,957명 가운데 자위행위 420명(21.46%), 임신 406명(20.75%), 생식기 222명(11.34%), 성관계 136명(6.95%), 바디이미지 97명(4.96%) 피임 82명(4.19%)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

임신과 피임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해보면, 여자청소년은 사이트 내방자 중 56.17%가 임신과 피임에 대해 상담해온 반면, 남자청소년은 전체 내방자 중 24.94%만이 임신과 피임에 대해 상담을 의뢰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자위행위가 상담내용 1위(21.46%)로 조사됐고, 여자 청소년은 7위(3.14%)에 불과했다.

>>

이러한 결과는 임신과 피임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여성 순결교육 중심의 잘못된 성교육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PPFK

###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청소년 상담실 안내 <<<

지 역	전 화 번 호	지 역	전 화 번 호
본 부	02)2634-2003	충 북	043)263-2000
서 울	02)855-0625	대전/충남	042)526-4000
부 산	051)624-5584	전 북	063)246-2003
인 천	032)424-4592~3	광주/전남	062)671-4050
울 산	052)273-4463	대구/경북	053)566-1900
경 기	031)257-3233	경 남	055)261-6219
강 원	033)256-0078	제 주	064)710-4149